석산 채취 허가 기간 끝났는데…

골재 수천 트럭 무단 반출

영광군의회 부의장 소유 업체 … 郡 묵인 의혹

영광의 한 골재 채취업체가 토석채취장 복구설계 승인 내용과 달리 골재를 무단으로 반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31일 영광군에 따르면 골재 채취업체인 (주)K산업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올해 7월 11일까지 10개월동안 영광군 대마면 대마 토석채취장에서 복구작업을 하던 중 3만1천571㎥의 골재를 임의로 무단반출해 영광의 모 기관 염산 방조제 건설현장에 납품했다는 것이다. 무단반출한 골재는 24t 덤프트럭 2천773대와 5t 트럭 178대 분량으로 시가 3억4천520만원에 달한다.

K산업은 영광군으로부터 10년(1997년 11월 13일~2007년 10월 12일)동안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해왔었고, 허가기간이 끝날 무렵인 지난 2006년 5월 16일 산지복구 기간과 방법 등이 포함된 복구설계 승인신청서를 영광군청에 제출했다.

승인신청서에는 ▲복구 중 발생한 부산물 현장 사용 및 외부반출 금지 ▲복구공사 기간 변경 땐 최초 복구설계 승인의 공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어길 땐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K산업은 허가기간이 끝난 뒤 복구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인 골재를 임의로 무단반출, 업체에 돈을 받고 팔아넘겨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K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군의회 부의장인 김모씨인 것으로 드러나 영광군이 불법사실을 알고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채취장에 대한 복구공사 및 부산물 반출중지 조치를 취했다가 지난달 25일 복구공사 재개명령을 내렸다. K산업 측은 "위법인 줄 알면서 고의로 무단반출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나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K산업 김모 전무 등 관계자 3명을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한 뒤 5일께 광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골재업체인 K산업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골재 3만1천여㎥를 무단으로 반출한 영광군 대마면 토석채취장. K산업은 산림훼손 현장을 복구해야 하는 복구기간에 골재를 무더기로 불법 반출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황우석 복제연구

정부, 승인 불허

정부가 황우석 박사의 인간 체세포배아 복제 연구를 승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확인됐다.

황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인간 체세포배아 복제연구 승인 마감 기한(8월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박사팀의 연구를 승인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 결정권자인 김성이 복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연합뉴스

날씨

땀 '줄줄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8월 1일 (음 7월 1일)

◇전국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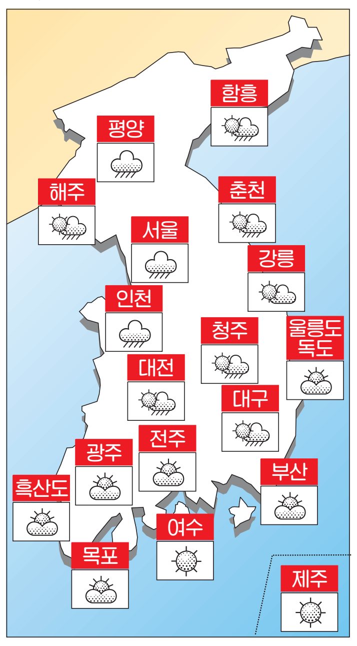
광 주	구름 많음	26~34℃
목 포	구름 많음	25~33℃
여 수	구름 조금	25~31℃
완 도	구름 조금	25~33℃
구 례	구름 많음	23~34℃
해 남	구름 조금	24~33℃
장 흥	구름 조금	24~32℃
고 흥	구름 조금	24~33℃
순 천	구름 많음	23~34℃
영 광	구름 많음	25~34℃
진 도	구름 조금	25~34℃
전 주	구름 많음	25~34℃
남 원	구름 많음	24~34℃
흑산도	구름 많음	23~29℃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 02:04 14:00 썰물 〈 07:25 19:23

여 수 밀물 〈 08:54 21:30 썰물 〈 02:56 14:56



▲해뜸 05:41 ▲해짐 19:36 ▲달뜸 05:04 ▲달짐 19:3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날 씨						
최저/최고	26/31	26/32	26/32	25/33	25/33	26/33

학자금 대출 금리

7.80%로 확정

교육과학기술부는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7.80%로 확정하고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출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65%였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이자지원 폭을 확대해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에게는 거치 기간 동안 이자 전액을, 3~5분위 계층은 3.15%를, 6~7분위 계층은 1.15%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저소득층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평균 4.82%로 지난 1학기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학교별 성적 공개된다

교과부, 서열화 논란 재점화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단위학교 또는 지역(시도)교육청별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해 학교 서열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5월 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올 5월부터 정보공시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책임자 연세대 강상진 교수)를 실시, 지난달 3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성적 공개와 관련,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공시 대상으로 하고 공시 단위 및 방법으로는 5가지 안을 제시했다. 5가지 공개 방식은 ▲단위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별(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 평균점수 ▲단위학교 학생의 4개 등급 성적(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 ▲단위학교 3개 등급 성적(보통이상, 기초, 기초미달)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도달' 비율 ▲단위학교가 아닌 지역(시도) 교육청 단위 4개 등급 성적 등이다.

교과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 중 한 가지 방안을 결정, 내주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 U대회 재도전 논의 본격화

토론회 잇따라 개최

광주시의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 재도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내 전남발전연구원에서 '2015 하계 U대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9일 열린 '광주시 하계 U대회 유치활동 평가와 전망'에 이은 2차 토론회로 광주의 U대회 유치 재도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기신 광주시 도시마케팅본부장, 송재선 광주시의회 의원, 윤민호 민주노동당 광주시지부 사무처장, 정형식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광주시의회도 광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U대회 유치 재도전 여부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의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상의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와 경제계,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하계 U대회 유치, 재도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그동안 'U대회 재도전은 전적으로 시민 뜻에 따르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토론회 내용이 주목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